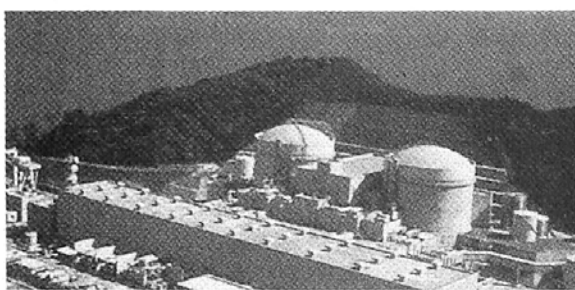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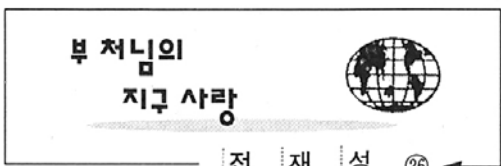


방사선 유전병 유발 장애초래



◇원자력은 다량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의 폐해가 심각하다.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빛·열·전파 등 방사능의 형태인데 자연의 방사선은 비이온화성으로 위험하지 않지만 생명체의 세포를 파괴하는 핵분열 과정에서 방사선은 이온화성

지금까지 약 1천5백회 정도의 핵실험이 대부분 아이러니칼하게도 평화목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반복되는 핵실험에 의해 성층권까지 올라간 방사능 물질이 전세계에 퍼져, 76년까지만

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아직도 14만여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또 1979년 미국 드림필드의 핵발전소 폭발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들이 암, 백혈병, 유산, 기형아 등의 고초를 겪어왔다.

특히 1986년 체르노빌의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2차대전 이후 인류가 당면한 최악의 사고였다. 이때 방사능 피해를 입어 오늘날까지 서서히 죽어가고 기형화되고 있는 사람이 1백만명이 넘고, 피해지역은 남한방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1993년말 현재 상업용발전용 9기의 핵발전소가 있고, 전체 발전량의 47.5%를 담당한다. 핵발전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5천여명에 이르지

만, 공식통계에 의하면 단 한명의 방사능 피해자도 없다고 하지만, 정부는 핵전 부근마을에서 생기는 각종 기형상을 외면하고 있다. 핵발전소 부근에서 무늬아가 탄생하고, 항문없는 송아지가 태어나고, 새 발 달린 강아지가 생겨나고, 물고기의 등이 휘고, 색깔이 변하고, 어류가 반이상 멸종되는 등의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핵전마을 무늬아출산등 이상현상 속출 체르노빌 사고뎀 기형아 1백만명 발생

으로 되어있어, 매우 유독한 보이지 않는 불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일은 매우 작은 총알에 세포중심의 유전자를 쏘이는 것과 같다. 그것은 체세포의 변화를 초래 전신장애, 소아회귀관 및 중추신경장애와 각종 악성종양과 수명단축을 초래하고, 생식세포에 영향을 끼쳐 유전병을 유발시킨다.

1945년 7월 미국이 뉴멕시코 열리고도시락에서 핵실험을 한 이후

해도 145Mt분의 유해 방사능물질이 지구 전체로 확산되었다.

비교적 안전한 핵발전소에서도 핵분열의 제어에 가끔 문제가 생기며,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의 온배수(溫排水) 문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방사능으로 오염된 핵폐기물의 처리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는 속도로 남아있다.

핵에너지라는 가공할 불이 일으키는 재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투하로 20

핵에너지

증자합성경(增殖阿含經)에 의하면 첫번째 태양의 열기가 증가되어 가뭄이 들고, 두번째 태양에 의해 하천물이 마르고, 세번째 태양에 의해 큰 강물이 마르고, 네번째 태양에 의해 호수의 물이 마르고, 다섯번째 태양에 의해 사대양의 물이 마르고, 여섯번째 태양에 의해 이 세상과 수메루가 연기를 내뿜고, 일곱번째 태양이 나타나면 지구는 폭발하여 사라진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구 멸망의 날에 태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불분명하지만 핵에너지가 갖는 위험한 에너지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 지구

상에 현재 잘못 이용되었을 경우 가장 위험한 에너지라고 한다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핵발전소와 핵무기는 똑같은 핵분열반응에 기초하고 있다. 핵분열은 우라늄 1g 속에 들어있는 1조의 25억배나 되는 모든 원자가 순식간에 분열하는 것으로, 이때 소요시간은 100만분의 1초 정도이다. 핵무기는 이러한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순간적으로 진행시키는데 비해, 핵발전소는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하여 점진적으로 진행시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러한 핵분열과정에서 불안정해진 미립자에서 생명체를 위협하는 방사능이

재기회의 대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한국불교 재기회의 대토론회 6개월만에 지난 16~17일 재기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살의 수행덕목과 재가불자의 현대적 승가로서의 요건이 제시됐다.

“현대적 승가로 새출발하자”

오늘의 재가불자, 불교를 좋아하는 동호인인가 불자인가. 이에 대한 반성과 재가불자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다.

지난 16~17일 양일간 펼쳐진 한국불교재기회의(상임의장 서돈각) 대토론회에서 이기영 공동대표는 '귀명삼보(歸命三寶)의 참된 의미와 실천'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불 법 승 삼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귀의하는가에 따라 불자의 모습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원효스님이나 예불문, 대승경전에 나타난 삼보관(三寶觀)은 본질적으로 일심(一心)이며 삼보일체(三寶一體)이다'고 전제하고 '모든 중생이 예외없이 불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있는자, 마음있는자 그누구도 경각을 이루고 보살행을 실천해 가는데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대표는 '기존의 율장만이 현대승가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율장의 전통을 따르려면 율장의 조목을 지켜야 할 것이고 적당히 고쳐가면서 지키려면 율장의 개정작업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표는 '불자는 예불문에 나타난 것처럼 중중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에 항상하고 있는 삼보에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바쳐 귀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기회의가 현대적 승가로 출발하기위해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본각(本覺)이며, 여래장(如來藏)이라는 사

- 이기영 목숨바쳐 삼보에 귀의해야
- 권기종 서원·회향 보살의 수행방편

심을 믿으며 부처님의 광명을 불보(佛寶)의 체(體)로 받들고 그상(相)과 용(用)의 거룩함에 귀명한다 △삼보의 동체대비속에 우리는 그 분신으로 신(信)명(命)제(財)를 바쳐 불국토를 장엄하는 대역사를 시작한다 △21세기 새 문명창조위해 낡은 가치관을 버릴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번째 기조발표에 나선 권기종교수(동국대)는 '보살의 지혜와 실천방향'이란 주제에서 '보살이란 인격이 특별히 부각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다'고 전제하고 '대승불교의 보살이나 불자는 피지도적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며 능동적으로 대중을 이끌고 지도하는 자리에 서있으므로 보살은 재가신도의 개념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권교수는 보살의 수행덕목으로 '육바라밀다'를 제시하고 '보시에서 지혜에 이르는 여섯가지 덕목자체를 완성해야만 진정한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교수는 또한 '보살마하살의 수행에는 서원과 회향이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각자가 쌓고 있는 모든 선행과 복업(福業)을 일체중생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제2의 회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교수는 '이같은 보살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직시하여 오늘의 불자들은 지혜의 완성과 수회, 서원과 회향, 선교방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신행수첩

청소년 있는곳 청정하게 청교련 유해환경 감시교육

산업사회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그 어느때보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 물질문명의 여유로움 속에서 필요악인냥 기생하는 것이 유해환경이다.

주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유해환경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 (사)대한불교청소년교

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청소년 유해환경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청소년기의 호기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한마당 장을 마련했다.

오늘 29일 예회여성들의 연쇄반응을 보여준 청교련 유해환경 감시단 시

민교육'이 바로 그것. 이번 시민교육은 예회여성들 시작으로 11월까지 인천지역 각 학교와 사찰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032)888-3228

203계단 오르며 통일서원 진여회 각원사 찾아

천안에서 북쪽 5.6km지점 태조산 언덕을 오르며 세계 최대라는 이미 타청동불이 나타난다.

이 좌불은 높이 12m, 둘레 30m에 귀의 크기만도 1.75m로 청동 60톤이 투입된 것이어서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언덕아래 골짜기에 이 대불을 받들고 있는 각원사가 있다. 각원사는 남북통일을 발원하며 법인스님이 세운 절로 큰 규모의 산신각과 칠성각, 요사채 등이 마련돼 있다.

진여회가 오는 10월 3일 천안 각원사 등을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특히 이 대불까지 올라가는데는 203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것은 108번뇌와 관세음보살의 32화신, 그리고 아미타불의 48소원(所願) 및 12인연(人緣)과 3행(行) 불법에 연관하여 설정한 유래를 알 수 있다.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진 천안 각원사의 아미타좌상. 불상의 복장속에는 부처님 진신 사리와 필만대장경 탁본이 봉안돼 있다.

천안역에서 46번 좌불상행 시내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있어 찾아가기에 편리하다. 또 이곳에서 2km쯤 태조산을 에두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성불사와 은석사도 볼 수 있다. (02)720-3245

불심 펼쳐는 교사학교 중앙교육원 정토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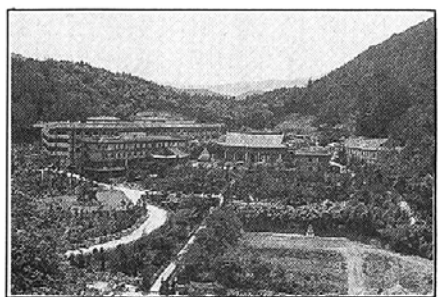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흔들림없는 자세로 참교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제9기 교사불교학회가 열린다.

다시 배운다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연기, 삼십인, 사성제, 팔정도 등 불교의 교리와 불교의 가정교육, 자녀지도 등 생활 프로그램 등 공부하게 될 이번 교사불교학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는 10월4일부터 11월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중앙불교교육원 정토포럼에서 열리는 이번 교사불교학회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522-2841

성지순례 양산 천불사가 좋습니다

(범어사에서 20분 통도사에서 30분 거리)



천불사는 2만여 평의 광활한 도량에 80평 규모의 목조 대웅전과 150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약사전, 종각 등 15동의 건물이 짜임새있게 배치되어 있는 대가람입니다.

특히 토함산 석굴암이 신라시대의 문화유산이라면 우리 시대의 문화유산으로 후세에 길이 남을 관음굴 석굴은 천불사를 찾는 참배객들을 경탄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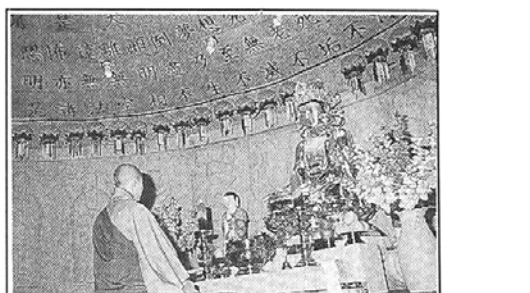
관음굴은 60여 평 규모의 자연동굴 내부에 대리석으로 된 조각이 있습니다.



관음굴 정면 벽면에는 관음보살과 18나한, 사천왕 등을 부조해 모셔놓았으며 동행 천장에는 중앙에 비천상 주위로 반야심경을 각인해놓아 관음굴의 기도영험은 차치하고라도 그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불사를 찾는 참배객들은 전통사찰이 아닌 사찰이면서도 정말 볼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녀가십시오.

범어사에서 20분, 통도사까지는 30분 거리에 있어서 삼사순례 코스로 정말 좋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천불사
신도회장 허보은 합장
신도회총무 변정석 합장